가키에몬 가마의 역사와 이념

가키에몬 가마의 역사는 1640 년대에 사카이다 기소에몬(1596~1666)이 일본 자기에 우와에(*overglaze enamel painting*, 상회)를 더하는 방법을 고안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로에(색회. 현지에서는 아카에)라고 불리는 이 기법은 유약을 발라 한 번 구워 낸 자기에 선명한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상회용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 넣는 것입니다. 기소에몬은 가키에몬이라는 이름을 받았으며, 이 세습된 이름은 현 당주인 15 대 가키에몬(1968 년~)까지 계승되고 있습니다. 이 일족이 만드는 자기의 양식은 '가키에몬 양식' 또는 간단히 '가키에몬'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가키에몬이라는 이름은 감의 색과 감촉을 훌륭하게 표현한 초대 가키에몬의 기술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650 년대 후반, 가키에몬 가마는 유럽으로 보내는 수출용 자기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가키에몬의 자기는 당시 아리타 지역에서 만들어진 다른 양식에 비해 비싸고 호화로운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높은 품질과 아름다움이 찬사를 받으며 유럽과 일본의 상류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1600 년대 말까지 가키에몬 양식의 자기는 아리타 지역의 많은 도자기 공방에서 만들어졌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의 도자기 공방에서도 그 디자인을 모방해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니고시데 자기를 만드는 방법은 가키에몬 일족만 알고 있었습니다. '니고시데'는 유백색의 자기 소지를 말하는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었고 가키에몬 일족의 당주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1700 년대에 들어서며 가키에몬 양식 자기의 인기가 시들해졌기 때문에 가키에몬 가마는 금을 악센트로 한 화려한 상회 디자인 양식인 긴란데 자기 생산으로 전환했습니다. 니고시데의 제작은 1950 년대에 12 대 가키에몬(1878~1963)과 그의 아들인 13 대 가키에몬(1906~1982)에 의해 부활할 때까지 중단되었으나, 1971 년에 니고시데는 국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2001 년에는 14 대 가키에몬(1934~2013)이 인간국보로 인정되었습니다. 2014 년에는 그 아들인 15 대 가키에몬이 대를 이었습니다.

15 대 가키에몬은 약 40 명의 장인을 통괄하고 지시를 내리면서 가마에서 만들어지는 현재의 모든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5 대 가키에몬의 작품 대부분은 선대들의 옛 디자인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은 것입니다. 친숙한 모티브를 표현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배우거나 다른 나라들의 디자인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여러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약 400 년에 이르는 일족의 역사를 보존할 때는 유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고려하고 독창적인 발전의 여지를 남겨두면서도 전통을 견지하는 방향으로 가마를 이끌어갈 필요가 있습니다.